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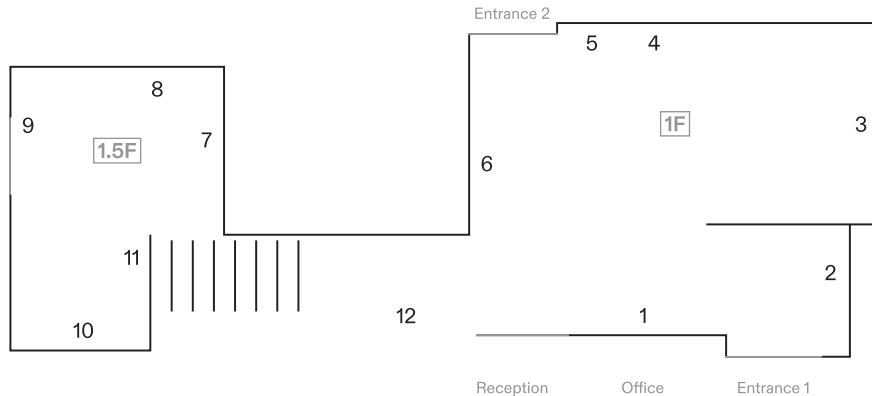
Song Seungeun *Planta*



25.5.15.Thur — 6.14.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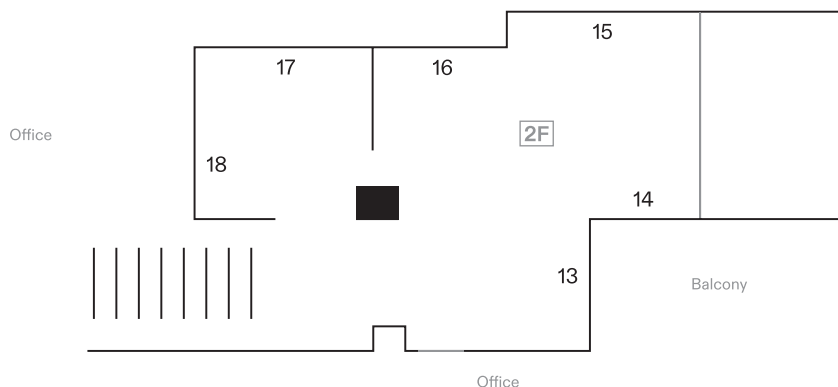
KICHE 

1F



1. 송승은, *플란타리아*, 2025, Oil on canvas, 53 × 41 cm
2. 송승은, *애완벌에 대한 고민*, 2025, Oil on canvas, 41 × 31.8 cm
3. 송승은, *파랑새의 조언*, 2025, Oil on canvas, 227.3 × 181.8 cm
4. 송승은, *오래된 컵과 이름을 잊은 산에 대한 기억*, 2025, Oil on canvas, 162.2 × 130.3 cm
5. 송승은, *희미하게 자라난*, 2025, Oil on canvas, 45 × 38 cm
6. 송승은, *기억나지않던 씨앗의 이름들*, 2025, Oil on canvas, 116.8 × 90.8 cm
7. 송승은, *씨앗의 이름을 정하는 법*, 2025, Oil on canvas, 116.3 × 80.2 cm
8. 송승은, *늦은 밤*, 2025, Oil on canvas, 33.3 × 24 cm
9. 송승은, *구름 이불*, 2025, Oil on canvas, 72.5 × 72.5 cm
10. 송승은, *오래된 컵과 이름을 잊은 산에 대한 기억*, 2025, Oil on canvas, 162 × 130.5 cm
11. 송승은, *오래된 컵과 이름을 잊은 산에 대한 기억*, 2025, Pastel on paper, 27.5 × 23.5 cm (Frame : 37.5 × 33.2 cm)
12. 송승은, *버디*, 2025, Oil on canvas, 38 × 37.5 cm

2F



13. 송승은, *기억나지않던 씨앗의 이름들*, 2025, Oil on canvas, 116.3 × 90.5 cm
14. 송승은, *종이뒤집기*, 2025, Oil on canvas, 45.5 × 37.7 cm
15. 송승은, *하루 다음 하루*, 2025, Oil on canvas, 149.8 × 149.8 cm
16. 송승은, *이상한 모자를 만들어쓰고 영웅담을 쏟아내는 사람*, 2025, Oil on canvas, 72.5 × 60.6 cm
17. 송승은, *이야기와 사물들*, 2025, Oil on canvas, 145 × 112 cm
18. 송승은, *이야기와 사물들*, 2025, Charcoal on paper, 65 × 49.8 cm (Frame : 74.6 × 59.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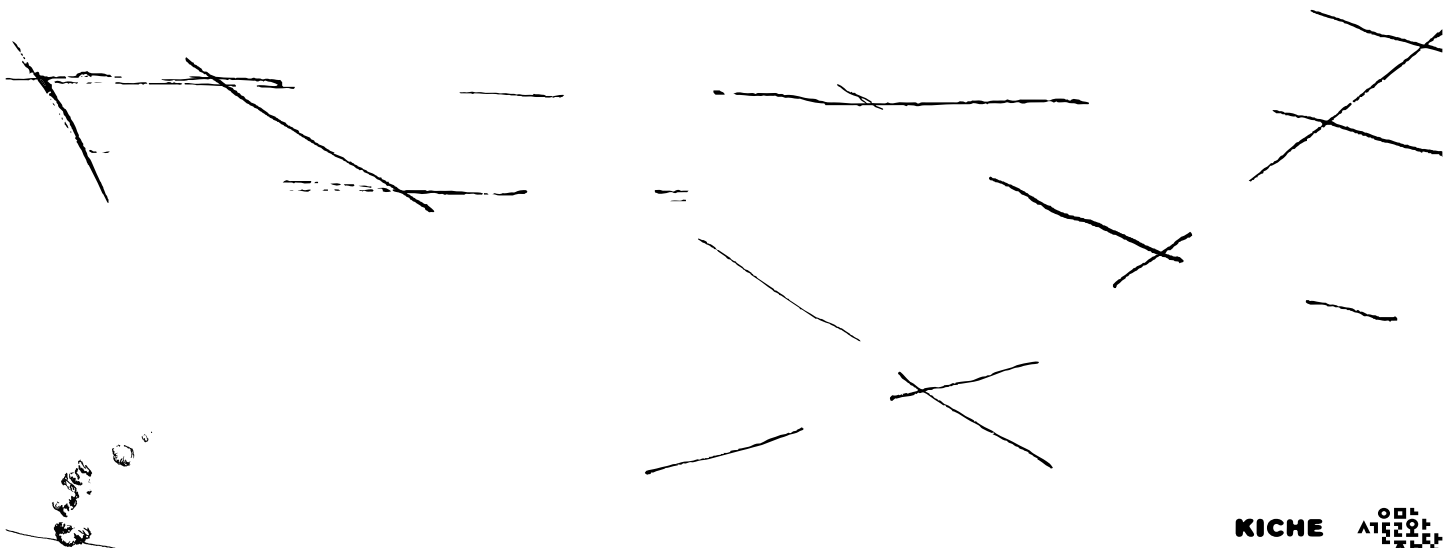
기체는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송승은의 개인전 《Planta(플란타)》를 개최한다.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평면 작업의 기본 요소인 선(線)에서 출발해 캔버스 위에 도면을 그리듯 구조적으로 쌓아 올린 회화 신작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150호 ‘파랑새의 조연’(2025)을 비롯한 회화 13점, 드로잉 2점 등 15점을 펼친다.

전시 제목인 ‘Planta’는 라틴어로 식물, 접지, 묘목 등을 의미한다. 송승은은 ‘계속 변화하면서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자신의 회화라는 생각에 흙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 숨 쉬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식물에 비유했다. 송승은의 회화는 떠오르는 기억과 감각적 잔상, 우연히 스친 이미지들이 서로 얹히고 중첩되면서 탄생한 새로운 장면들을 담아낸다. 특히 이번 신작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작동하고 변화하는 회화의 상태를 더욱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실험적 시도다.

“나는 내부의 것들, 개인적인 경험, 생각, 기억들이 어떻게 회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떠오른 것을 다양한 매체의 이미지를 이용해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데, 항상 회화의 서사성과 표면적 깊이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서사를 써 내려가는 것보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가깝다. 각 요소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도록 정교하게 조립된 장치 같은 것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이전 작업에서 송승은은 이미지를 구상하는 수준의 콜라주와 간단한 드로잉 후 회화를 완성했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콜라주 작업 후 이를 회화적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목탄 드로잉과 다시 이 이미지의 조형성을 기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선 드로잉 과정을 거쳐 캔버스 위에 물감을 쌓아 올렸다. 특히 선 드로잉은 건축에 비유하면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에 가깝다. 이번 신작에서 이미지의 윤곽과 선과 선의 연결이 두드러지는 이유다. 연작에서는 이런 작가의 탐구 과정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오래된 컵과 이름을 잊은 산에 대한 기억’ 연작 2점은 같은 콜라주, 목탄 드로잉, 선 드로잉을 거친 하나의 이미지에서 비롯됐지만 서로 다른 색에서 출발해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결국 ‘Planta’는 회화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안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작가의 탐구를 상징한다.

송승은(b.1991)은 홍익대학교에서 회화와 학사를,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개인전은 Planta(기체, 서울, 2025), 미끄러진 찻잔(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22), Grab the Slush(Keep in Touch Seoul, 서울, 2020)가 있고, 주요 그룹전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기체, 서울, 2024), 다중시선(금호미술관, 서울, 2023), 오늘, 순간, 감정(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21), BGA Showroom(BGA마루, 서울, 2021), 공백이 가득한 행성(합정지구, 서울, 2018)이 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2025, 2022), 예술지원사업 RE:SEARCH(2021), 최초예술지원사업(2017)에 선정되었다.



‘플란타(planta)’는 라틴어 여성 명사로 식물을 뜻한다. 송승은은 개인전 《Planta》에서 지난 10년의 시간, 어쩌면 그 너머의 과거까지도 이 단어 안에 포함시킨다. 그가 플란타를 제 언어로 삼고 의미화하기까지, 이 시간에 놓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10년 간 한 작업실에서 보낸 선행의 시간과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더해진 내적 성장과 변화에서부터, 작가 자신과 그의 작업들이 작업실에 뿌리내리며 한데 엉켜 발생시킨 무수한 이야기들이 포함된다. 송승은에게 플란타는 ‘작가(자신)-그림-작업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감각의 집합체로써 구현된 그림들에 붙인 별명이자, 그가 작업실에서 반복하는 생각과 행위, 구조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 장소에서 오래도록 보내온 시간은 《Planta》를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송승은은 물리적인 이동에서 발생하는 매일의 변화에 자극받기보다, 자신에게 알맞고 편안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사유하고 축적하는 일을 의미 있게 여긴다. 송승은이 가진 작가적 특질은 비평가 폴 발레리(Paul Valery, 1871~1945)가 카미유 코로(Jean Baptiste Camille Corot, 1796~1875)의 풍경화를 떠올리며 사유한 한 문장을 떠올리도록 한다. “나무는 지금 자라고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나무든 제각각 자신의 지점이 있다는 것. (...) 한 그루의 나무에는 그 나무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 나무는 인격을 가진 ‘누군가’이다.”¹ 발레리의 언급처럼, 보통 나무는 한 자리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는다. 타자의 의도 혹은 불가피한 외부 자극에 의한 물리적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나무는 한 자리에 뿌리내리고 제 평생의 시간을 한곳에서 보낸다. 그 자리는 나무가 뿌리내린 자신만의 온전한 지점이다. 한 그루 나무에는 저만이 경험한 무수한 만남과 사건, 오롯이 제 몸을 통해 느끼는 일들, 수십 년에서 수백 년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다. 송승은이 한 공간에서 작업하며 보낸 지난 10년의 시간 속에도 발레리가 묘사한 나무의 시간처럼 고유함과 특별함이 녹아 있다. 《Planta》는 그 시간과 이야기를 거슬러 따라가 보는 자리이다.

《Planta》의 시간을 따라 마지막 지층에 다다르면, 표면 아래로 깊이 뿌리내린 안 보이는 무언가 단단히 자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이 무언가는 앞선 10년의 시간보다 그가 먼저 보낸 시간에 있다. 작가는 기억을 돌이켜 자주 과거, 유년의 시절로 돌아가곤 한다. 그 핵심 기억에는 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집의 베란다 가득히 그의 엄마가 돌보던 푸른 식물들이 가득 자라고 있는 풍경이 있다. 지금까지도 작가의 기억에 선명히 남은 잔상 속에는 오래된 한 장면이 있었다. 엄마의 습관과 흔적, 몸짓과 언어는 송승은에게 자양분이 되어 제 존재를 구성한다. 플란타는 그렇게 송승은의 ‘모어(母語)’에 최초의 뿌리를 내린다. 그의 모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아주 자연스럽게 작업 전체를 지지하는 토대가 된다. 플란타는 아주 오래 전, 자신도 모르게 받아먹고 몸과 기억으로 익힌 씨앗의 언어다.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직접적인 말하기의 방식을 비껴서, 자신이 체화하여 소중하게 간직하던 말들을 소리 없이 내뿜는다. 《Planta》는 송승은의 모어, 그가 회화로 말하는 방식이다.

한편 송승은의 그림에는 어떤 규칙과 절차가 내재한다. 작가는 한 점의 회화를 완성하기까지 그 사이 꽤 긴 과정을 둔다. 서사의 뉘앙스와 형상을 탐색하기 위해 20세기 초중반 제작된 옛 TV 애니메이션이나 삽화의 장면들을 재조합해 오려 붙인 종이 콜라주를 시작으로, 그림의 중심에 놓일 주된 형상과 구도를 연필로 스케치하고, 이를 다시 목탄 드로잉으로 옮겨 명암과 조형성을 탐색한 후, 파스텔 드로잉으로 구현하며 색 간의 조화를 살핀다. 작가는 앞선 과정을 선행한 후에야 비로소 캔버스로 향한다.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든 후에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식물에 물을 주는 주기가 있듯, 송승은은 ‘플란타’ 연작의 진행에 있어 자신만의 주기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작업들은 일렬로 놓여 동시성 속에 칠해지고, 또 휴지기를 갖고 건조되기를 반복한다. 작가가 설정한 모든 규칙과 절차는 남모름 에너지와 시간이 더해진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인간의 시점에서 보면, 식물들이 소리도 통증도 없이 고요히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 안에서 하나의 잎을 움트기 위해 온갖 열기를 응축하고 발산하는 것처럼, 송승은의 작업 과정은 고요하지만 치열한 식물의 성장과 닮아 있다. 또한 송승은의 회화에서 감지되는 식물성은 화면과 색채로 이어진다. 그의 회화 속 화면과 색채는 과거를 맴도는데, 이 과거는 푸른-초록의 색을 지녔다. ‘플란타’ 연작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색감인 빛바랜 초록과 파랑은 그가 어린 시절 집에서 보던 구형 TV 속 빛바랜 화면의 색을 닮았다. 다시금 과거의 기억이 그의

회화 앞에 색채가 되어 맴돈다. 이 색은 어린 시절 TV 속 화면의 색이자, 사물을 오래 간직하는 버릇이 있는 아빠의 색, 그 기억을 제 시야의 가장자리에 간직하고서 자란 송승은의 플란타 색이다.

《Planta》에서 일련의 그림들은 ‘여기’와 ‘저기’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다. 구상과 추상을, 서사와 비서사를, 형상과 색채를, 규칙성과 자율성을, 세워지는 곳과 허물어지는 곳을, 꿈과 현실을 가로지른다. 송승은은 한 쪽의 회화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품고자 하기에, 성격과 태도에서 상이한 경계를 설정하기에, 그의 그림들은 마치 울이 풀린 스웨터 같다. 한 스웨터에서 실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촘촘하게 짜이며 옷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다. 여기에서 어떤 이유로 밀단의 실 한 올이 풀렸다고 상상해보자. 실이 풀리면서 점차 옷의 형태가 허물어지고 저만치 기다란 곡선을 그리며 실이 달아나는 장면을 볼 때, 실 그 자체가 제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올 풀린 스웨터’를 상상하며 송승은의 그림을 바라보면 어떨까? 용도와 모양새가 잘 갖춰진 스웨터를 보다가 별안간 풀린 올을 발견하는 순간, 스웨터의 재료가 된 실에 집중하며 비로소 실이 지닌 본질로 선과 색에 주목하게 되는 순간처럼, 송승은이 회화에서 형상을 구축하고 동시에 허무는 방식이 이와 유사하다. 작가는 회화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양가성, 아이러니를 작업에 즐겨 배치한다. 특정 기능과 목적을 염두에 둔 잘 고안된 구체적 형상이 있다면, 그 너머에는 형상이 구축되기 전 고유한 상태와 성질이 물질로 덩어리져 있다. 송승은은 앞선 과정을 후발적으로 되새겨 발견하는 일을 회화로 수행한다. 그림 속 화면에서 인물의 형상이 드러나는 동시에 면으로 번지고, 사물 묘사가 진행되는 한편 뭉개지며 물감의 존재가 부상하는 데서 송승은이 회화의 진입로로써 앞서 보여주고 싶은 것과 그 다음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게 드러난다. 작가는 회화에서 이 순간을 만나기를 늘 기다려왔다. 이 기다림은 자신의 회화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사랑한 과거 회화들에 놓인 진심이나 진실을 발견하는 일로도 이어진다. “붓질을 따라가는 일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보는 표면은 작가가 그린 마지막 붓질이다. 그 아래를 찾아내다 보면 그림의 가장 깊은 곳에 닿는다. 오래된 그림을 관찰하는 것은 그가 남겨놓은 진심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이 이 시대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진짜라고 믿는 것 같다. 시간을 거꾸로 쫓아가는 일에서는 종종 감추어져 있던 진실이 조금씩이라도 주어진다.”² 송승은의 올 풀린 회화는 마지막에 매듭지은 가닥을 풀어, 올의 방향과

시간을 거슬러 회화의 진실한 지점을 찾는 여정을 떠난다. 송승은은 《Planta》를 경유해 시작과 근원을 되새기는 내적 모험을 감행한다. 이는 시작의 언어이자 근원의 언어, 다름 아닌 그의 첫 언어인 ‘모어’를 찾는 여정이다.

1 폴 발레리, 『인간과 조개껍질』, 정락길 역, 서울: 이모션박스, 2021, 27쪽

2 송승은의 작업 노트에서 발췌

